

# 진안군 등산로 14km 정비

### 덕태산 등 4개산 7억7000만원 투입



진안군은 산림훼손 완화와 산림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산행인구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고 산림훼손 완화와 산림 생태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올해 7억7000만원을 들여 덕태산, 만덕산, 부귀산, 용두봉 4개산 5개 코스 14km의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덕태산과 만덕산은 침묵계단과 위험 구간 내 로프 난간 설치와 부귀산은 등산로 협소구간에 대해 노면 정리와 확장을 하고 이정표를 설치할 예정이다. 용두봉은 이용객들의 조망권 확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망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행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과 안내시설을 갖추고 자연경관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

키로 했다.

또한 이정표와 안내판을 보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연차적 등산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안군 등산로는 마이산, 구봉산을 비롯하여 17개산 39코스 151km의 등산로와 급남정맥을 포함한

3대 정맥길 78km 그리고 14코스 210km의 진안고원길이 있다.

황상국 산림과장은 "깔끔하고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로 군민과 등산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전해석 진안군 산림조합장 취임

### 조합 자립기반 구축·조합원 권익신장 높여

지난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출마자 3명 가운데 전해석(현 조합장) 후보가 재선되어 21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해석 조합장은 재임기간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압도적인 표로 연결됐다는 평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진안군산림조합이 매년 비약적인 성장과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결과이며 지난해 산림자원조사분야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산림조합중앙회장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전 조합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서 2017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하였으며, 진안군재향군인회 이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로 활동하면서 그의 행보는 지역에서도 책임이 막중하다.

전해석 조합장은 "향후 이어질 4년간의 조합장직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조합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더욱 더 사랑받는 조합으로 만들며, 조합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1일 제2기 출범을 시작한 전해석 조합장은 "작은 취임식"으로 취임 경비를 절약해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매아리

#### 무주군, 대대적인 방역활동 실시

무주군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유충 서식지인 정화조와 하수구, 저수지, 축사 주변 등 454곳에 대한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유충구제는 월동모기를 제거해 산란을 막고, 하절기 모기발생 시기를 늦춰 개체 수 밀도를 낮추기 위해 실시하는 방역활동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에서는 방역전담팀을 꾸렸으며 오는 10월까지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박인자 팀장은 "유충구제는 유충 1마리 구제로 성충 모기 500마리의 방제효과가 있다"라며 "우리 군에서는 이 과정에서 유해하지 않은 생물에는 작용하지 않는 친환경 미생물제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에서는 매월 1회 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5월부터는 살충제와 경유를 희석해 사용하던 연막방식을 살충제와 물을 섞어 사용하는 연무방식으로 바꿔 환경 및 인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고인물과 잡초 제거 등 모기 서식지 제거를 위해 필요한 군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수립

진안군은 21일 법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4.16~7.24) 실천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과제 실천을 위해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 시작 전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중점단속구역 10개 구역 지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6개소) 학교반경 300m 이내 ▲소방시설(3개소) 시설반경 5m 이내 ▲주정차 상습위반구역(1개소) 썬더~터미널 구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조표지판 2개, 소방시설에 보조표지판 및 경계식 적색 표시 7개소, 교차로 모퉁이에 황색 복선 및 보조표지판 1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주·정차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안전무시 관행을 계기로 올해 4개 불법 주·정차(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개선을 선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 식용곤충 갈색거저리 희망농가에 분양

### 실내서 키우기 쉽고 고단백 식품 재료로 활용 인기

무주군이 직접 사육한 식용곤충 갈색거저리를 희망농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곤충·사육시설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분양 규모는 유충 1만 마리, 번데기 2천 5백 마리다. 분양을 원하는 농가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반딧불이팀(063-320-2834) 또는 반딧불이연구소(063-320-5697)로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김강혁 박사는 "갈색거저리는 밀가루 등 저장

곡물과 그 부산물을 먹이로 해서 실내에서 키우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능이 입증돼 특히 환자들을 위한 고단백 식사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며 "고부가가치 품목인 갈색거저리 사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가 나서 지난 2015년부터 한 해 50kg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곤충사육 농가는 18농가로 대부분이 흰집

막이꽃무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갈색거저리 사육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반딧불이팀 이용기 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미래의 식량자원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곤충을 산업화시키기 위해 올해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갈색거저리 사육 확산에 나선 만큼 우리 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소득품목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표창

장수군이 전북도가 주관한 '2018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암관리 수검률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유공 공무원 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12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암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수검률과 암검진사업 담당자들의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 및 암센터 연계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평가

했다. 장수군은 암검진 안내문 발송, 1:1 전화 검진 독려로 주민들의 암 검진 관심 제고, 지역사회 자원 및 암센터와 연계한 홍보사업, 암 예방교육을 통한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안내 등 군민 건강증진 향상에 주력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및 검진의료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암 진단비와 치료

비를 지원,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5대 암검진에서 올해 7월이후부터 폐암이 추가돼 6대 암 검진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만 54~74세로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으로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보건의료원(063-350-27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진무장 CEO포럼 건설부문 세미나가 최근 건설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 장수군, 완진무장 CEO포럼 건설부문 세미나

완진무장 CEO포럼 건설부문 세미나가 최근 건설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군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CEO포럼 건설부문 세미나에서는 세부부분과 건설부분으로 구분돼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가설·흙막이 공사와 무형자산 증식 전략·2019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관련 교육 등으로 진행돼 호응을 받았다.

완진무장 CEO포럼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정치·사회·경제·교육의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연구 활동, 세미나,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의 확대와 상호교류, 우호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며 상공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공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신달호 부군수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2차 심사를 통과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건설인들도 생활 SOC 사업을 비롯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